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

장 훈[†]

Colorado State University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고, 현재는 우리 일상에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은 이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과는 다른 방식의 소통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인터넷 관련 연구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인터넷은 경제적, 정치적 이익이 있는 반면, 인간관계, 인간의 삶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인터넷의 부정성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초한다.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무분별한 노출, 악성댓글, 인터넷 게임중독,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인터넷의 부작용들이 보고되었고,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은 인터넷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장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관련 연구들은 인터넷의 부정적인 측면 뿐 아니라 인터넷의 긍정적 영향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인터넷이 사람들의 삶과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에 선 학자들은 인터넷이 현실을 대체한다는 관점에서 인터넷의 부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이 면대면 대화를 줄이고, 현실을 일정부분 대체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관점에서는 개인의 인터넷 사용동기, 목적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보다는 사용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패러다임에 따른 연구들은 인터넷이 인간관계의 물리적 제약들을 해결해줌으로써 인간의 삶, 인간관계 등을 확장해준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터넷의 부정적 특징으로 여겨지는 익명성도 도리어 새로운 만남을 보탬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인터넷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은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지만 두 입장의 간격을 쉽사리 줄여지지 않고 있다. 본고는 인터넷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인터넷이 우리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통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인터넷,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 SNS, 인간관계

† 교신저자 : 장훈, Colorado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E-mail : jhoon99@hanmail.net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과 일상

바야흐로 SNS(Social Network Service 또는 Site)는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턴트 메시지, 커뮤니티 등 다양한 SNS는 매순간 우리 일상에 등장한다. SNS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일반인이 주도해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타인에게 개방적이고, 타인과 소통이 가능한 사회적 매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된다.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 경험, 정보 등을 타인과 공유하고(예: 블로그, 유튜브), 타인에게 확산시키고(예: 페이스북, 트위터), 타인과 지속적으로 소통(예: 카카오톡)할 수 있다(이동훈, 이민석, 박성민, 이준환, 2010). 이와 같은 SNS의 정의와 사용방식은 SNS가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인터넷과 SNS는 등장 후 단시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다. 2000년 44.7% 이던 만 3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은 2012년에 78.4%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고, 2012년 현재 10-3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99%를 넘어섰고, 3-9세의 인터넷 이용률도 88.2%나 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같은 맥락에서 SNS 사용량의 증가는 SNS가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인식 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한국의 SNS는 하루 평균 2.5시간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일 평균 3시간 이상을 사용되는 경우도 37.3%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젊은 층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SNS 플랫폼 중 하나인 카카오톡은 2011년 기준 가입자가 1000만에서 2012년 7000만을 넘어섰고, 1주일에 6.38일을 사용되며, 하루 평균 48분이 사용

되고 있고, 일일 최대 42억건의 메시지가 오고 가고 있다(동아일보, 12. 23). 외국에서 개발된 SNS 플랫폼 또한 마찬가지 상황이다. 2010년 기준, 유튜브(youtube)는 1일 시청자가 20억 명이나 되고, 페이스북 facebook)은 전 세계적으로 4억 7천만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트위터(twitter)는 1억 6백만 명 가량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동훈 외, 2010).

인터넷의 이용 동기는 타인과의 소통정도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유통 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도 한다. 여가시간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적 목적은 인터넷 사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두 번째 인터넷 이용 동기는 인맥의 형성, 유지, 관리와 같은 사회적 목적이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오프라인의 인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들과 계획을 짜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도 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Flanagan, 2005; Lenhart & Madden, 2007). 이는 SNS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09)의 SNS이용 실태 조사에 의하면 사용자의 93%가 친구, 교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른 모든 이유들도 타인과의 소통과 관련 있는 이유였다. 또한 친구, 교제의 대상에 있어서는 98.6%가 오프라인 인맥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신규인맥을 형성하거나, 신규 인맥을 관리하는 사람도 각각 87.9%, 53.6%로 나타났다. SNS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SNS는 사

사람들의 관계 욕구(Need to belong, Relatedness)를 반영하는 집약체로 보여진다.

인터넷과 SNS 이용의 증가에 따라 인터넷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해 왔다. 초기에 관련 전문가들은 인터넷, SNS에 대해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나타냈다. 인터넷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경제적 가치, 정치적 가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예를 들면, SNS는 정보를 소통하는데 적은 수의 유통단계를 거치며, 소통이 쉽지 않은 다양한 계층에게도 소통 가능하다는 점과 정보유통의 효율성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주장되었다. 또한 정보소통의 원활함으로 인해 민주주의 확산, 정보의 평등성, 여론의 자발적 생산 등을 기대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실제로 인터넷 사용이 자발적 사회 봉사단체, 정치단체 참여를 촉진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Wellman, Haase, Witte, & Hampton, 2001). 한국의 경우에서도 지난대선에서 SNS를 통한 정치참여가 상당히 이루어지는 것이 목격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대권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글 등이 트위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었다. 이는 인터넷과 SNS가 확산되기 이전의 대선과는 다른 풍경이었다.

인터넷은 흩어진 소수를 하나로 모아 힘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2008년 세계 최대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는 승객의 3,500달러짜리 기타가 운반되던 중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측에서는 파손 배상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기타의 주인인 음악가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배상거부와 관련해 음악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렸고, 이를 시청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타파손을 배상하라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였다. 결국 유나이

티드 에어라인은 SNS에서 생성된 여론에 굴복하여 기타 값을 배상하였다(Aula, 2010). 흩어져 있던 소수가 SNS를 통해 연대하고, 사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치적 힘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 측면에서는 인터넷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았다. 인터넷의 상대적 익명성으로 인한 폭력성이 지적되기도 하였고,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단점, 무분별한 포르노그래피의 유통 등도 지적되었다. 인터넷 기반 의사소통의 부정적인 현상은 구체적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인터넷 게시판의 악플 혹은 악의적인 소문은 악플 대상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스팸메일, 인터넷 중독이 인터넷의 일상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일반적으로 단점은 장점에 비해 두드러지게 인식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SNS에 대한 미디어와 관련 전문가들의 부정적 견해는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McKenna & Bargh, 2000).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특히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이 학업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고 있다. 미국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학부모들의 2/3가 아이들의 인터넷 사용이 아이들을 고립시킨다고 믿고 있었으며, 40% 정도는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반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킨다고 믿고 있었다(Turow, 1999). 하지만 최근 조사에 의하면 SNS나 인터넷이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며, 인터넷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많은 일상이 제약되기(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때문에 인터넷이 삶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과 관련된 현실적 기초자료들에 의하면, 인터넷은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때로는 부정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인터넷, SNS 사용 관련 통계들은 인터넷 혹은 SNS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가장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 정보소통, 편리함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인터넷이 삶에 미치는 영향, 특히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 중요성에 비해 다소 산만한 결론들만 도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는 그동안 연구되어온 인터넷, SNS의 연구들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인터넷과 SNS가 우리 삶과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과 떨어지는 인간관계

인터넷 및 SNS 도입 초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특히 심리학자들은 새로운 미디어가 삶과 인간관계에 줄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는 분위기였다. 이들이 걱정한 것은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체하면서 생기게 될 부작용이었고, 부작용 사례들도 발표되기 시작했다. 인터넷의 부작용과 관련해 초기부터 현재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중 하나는 대체가설이다. 대체가설(Displacement Hypothesis)은 말 그대로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체한다는 의미이고(Nie & Hillygus, 2002), 특히 인터넷 사용시간이 기존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대체하게 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면대면 상호작용이 강한 연대감을 줌으로써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는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Elliot & Quattlebaum, 1979; Flaherty, Pearce, & Rubin, 1998). 그런데 인터넷 사용은 면대면 대화의 축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Turkle, 1996). 이때 시간자원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시간 자원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다. 온라인은 편리성, 접근성, 유인성 등을 무기로 점차적으로 확장될 수 있고, 오프라인의 필요성을 줄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된다(Nie & Erbrings, 2000; Kraut et al., 1998 참조).

초기의 인터넷과 삶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대체가설의 이론적 지향을 따른다. Kraut와 동료들(1998)의 “인터넷의 역설” 연구는 대체가설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연구다. 애초에 Kraut와 동료들(1998)은 인터넷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였다. 그들은 인터넷이 사회적 연결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지원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덜 외롭고, 정신건강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인터넷이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학 신입생들과 지역 커뮤니티 일원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지급하고, 인터넷 이용과 인간관계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 초기에 높은 안녕감을 보이던 참가자들은 2년이 지난 연구 후반이 될수록 약하긴 하지만 사회적 관계 참여가 낮아지고, 우울한 경향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온라인을 통한 익명의 타인들과 대화가 역설적으로 현실에서의 개인을 고립시키고, 실제 사회관계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다. 애초 가

설과 다른 인터넷의 부정적 결과로 인해 이 연구는 “인터넷의 역설”로 유명한 논문이 되었다. 연구가 발표되었을 당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연구이기는 했지만, 인과관계 설정의 오류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문제점은 통제집단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의 주 효과를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점이었다(Shapiro, 1999). 위 연구는 인터넷을 지급한 집단만을 종단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인터넷을 지급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가 불가능 하였다. 따라서 인터넷과 사회관계에 대한 인과론적관계 확인이 어려웠다. Kraut와 동료들의 연구는 표집대상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Shapiro, 1999). 연구에 사용된 표집대상 중 하나는 대학 진학을 위해 집을 떠난 학생들이었다. 대학진학을 위해 집을 떠났다는 것은 오랜 친구들과 가족을 떠났다는 것이고, 이는 사회적 관계망 축소를 의미한다. 또한 낯선 곳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인터넷 사용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Kraut와 동료들의 주장과 정반대의 인과관계다. 또한 커뮤니티 집단의 경우 애초에 사회적 관계가 풍부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적으로 회귀하는 현상, 즉 사회적 관계의 평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낮아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되었다. 방법론상 결점 외에도 위 연구에서 나타난 외로움과 우울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중보건 정책을 구성하는데 현실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Rierdan, 1999). 또한 인터넷 보급 초기의 연구는 인터넷이 보편화된 작금의 현실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어떤 도구든 초기에는 도구에 적응하기 위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 시행착오 중 하나가 그 대상에 익숙해지고 재미를 얻기 위해 시간투자를 많이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되고, 시간 투자는 평균으로 회귀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자신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터넷에 노출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인터넷이 삶의 중간에 끼어들어 일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그 일상의 커다란 부분으로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은 사용전후 비교가 불가능하며, 무의미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인 소속의 욕구(Need to belong)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은 다른 사람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인터넷이 사회적 관계 자체를 줄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인터넷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 중 Kraut와 동료들(1998)의 연구와 더불어 가장 주목을 받은 연구는 Nie와 Erbring(2000)의 4000명의 전국단위 조사연구였다. Nie와 Erbring(2000)도 대단위 표집대상이라는 강점을 토대로 인터넷 사용이 가족,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줄인다는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넷의 역설”과 같은 선상에서 Nie(2001)는 인터넷이 면대면 접촉을 줄이기 때문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해치고, 궁극적으로 인터넷은 고독한 군중을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조사 연구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첫 번째 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샘플의 95%가 가족,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과다 이용자의 88% 또한 가족, 친구와 보내는 시간의 차이가 없다고 나

타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인터넷이 가족과 친구와의 접촉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미디어 TV, 신문 등에 투자하는 시간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인터넷이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를 유발한다는 주장과는 다른 결과였다.

Kraut와 Nie의 연구를 필두로 인터넷 사용의 결과로 사회적 관계의 감소, 낮은 사회적 기술, 낮은 친밀감, 고독, 소외, 낮은 안녕감 등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었다. Nie와 동료들(2002)의 다이어리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인터넷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으면, 친구,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안녕감과 전반적으로 부적인 관련이 있었다(Valkenburg & Peter, 2007). 특히 낯선 사람과의 인터넷 대화는 심리적 안녕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대화에서 대화 상대가 친밀하면 인터넷 대화는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인터넷의 편리성으로 인해 접촉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다.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의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는데, 기존의 전반적인 인터넷의 부작용과 다르지 않았다. 예를 들면, 빈번한 인터넷 사용이 청소년의 가족관계의 질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esch, 2003). 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많은 카카오톡과 같은 인스턴트 메시지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대인관계기술 수준이 문자사용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자사용은 사회적 기술 수준이 낮은 사람이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는

현상으로 해석되었다(Ishii, 2006).

온라인, 오프라인의 시간자원에 대한 경쟁과 할당의 문제와는 다소 다르게 인터넷 대화가 강한 관계(Strong tie)보다는 약한 관계(Weak tie)를 양산하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입장도 제기되었다. 약한 관계는 피상적이고, 쉽게 깨질 수 있고, 빈번하지 않은 인간관계를 나타내고, 강한 관계는 빈번하고, 깊은 정서적 유대, 서로에 대한 의무에 기초하는 관계다. 강한 관계는 삶의 스트레스에 일종의 버퍼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한 관계 보다 나은 심리적 결과를 갖는다(Cohen & Wills, 1985).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점이 정서교환이 아닌 정보교환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친밀함이 낮고, 부정적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Cummings & Kraut, 2002). 최근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경향신문, 2011)한 결과, 페이스북을 통해 300명 이상의 친구를 사귀고 있었으나, 73%가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가짜 친구라는 인식은 이러한 관계의 약함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온라인이 수동적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온라인이 타인과 소통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인터넷의 현실적 소통방식은 양방향 소통이 아닌 단방향 소통(함유근, 박성민, 2011에서 재인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삶과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자의 90%는 직접 콘텐츠를 창출하지 않고 관망을 하며, 9%는 단순한 댓글로 콘텐츠에 약간의 기여를 하며, 1%만이 내용을 생산하는 90-9-1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함유근, 박성민, 2011에서 재인용). 이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 능동적

참여자로서 타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양방향 의사소통을 한다는 가정과 정면으로 배제되는 현상으로서, 인터넷 기반 의사소통이 능동적이거나 긍정적인 필연적 이유는 없다는 점을 나타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의 부정성에 접근하는 방식 중 대표적인 접근 방식중 하나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접근 방식이다. 중독적 접근은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개인적 부작용과 사회적 부작용을 동시에 다룬다(Young, 1998).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연구들은 일정부분 사회적 측면에서 대체가설의 논리를 공유 하는 동시에 개인적인 측면에서 내성, 강박, 금단과 같은 증상들과 같은 인터넷 이용의 병리적 징후를 다루고 있다. 대체가설을 공유한다는 의미는 인터넷 혹은 게임중독이 병리적 징후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해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관점에서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투자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도 인터넷 중독으로 여겨진다(Grohol, 1999).

인터넷 중독 담론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습을 방해할 수 있는 인터넷과 SNS를 경계했다. TV가 등장했을 때도 그렇고,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전문가들과 매스미디어는 새로운 기술이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보도했고, 학부모들은 이러한 담론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그러나 Grohol(1999)은 심리학자나 미디어가 인터넷 중독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자체보다는 심리적 취약성이나 생활사건, 사회적 고립과 같은 원거리 원인에 기초하기 때문이다(Davis, 2001).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화된 인터넷 사용이 인터넷 중독과 더 연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개인화된 인터넷 사용은 인터넷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타인과 단절된 인터넷 사용, 예를 들면, 게임 이용과 같은 인터넷 사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게임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개인적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환경과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들도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오프라인 사회관계에서 회피적 전략을 보이는 사람은 온라인에서도 회피적인 인터넷 사용, 즉 개인화된 인터넷 사용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Heitner 2003, Mazalin & Moore, 2004; Seepersad, 2004). 그리고 온라인이 현실에 비해 더 보상적일 때 강박적으로 인터넷에 집착하게 하기도 한다(Kim, LaRose, & Peng, 2009). 그러나 인터넷을 사회적 관계의 형성, 유지,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아의 확장, 사회적 관계의 확장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된다(Sproull & Faraj, 1995). 위와 같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인터넷이 사용자, 사용목적에 따라 중독의 장이 뿐 아니라 치료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Campbell, Cumming, & Hughes, 2006).

중요한 점은 인터넷 중독의 시작점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이점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현실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인터넷이 현실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면 개인 행위의 결과가 인터넷으로부터 직접 야기된 것은 아니다. 인터넷이 보다 자극적이기 때문 중독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되기도 하지만 이는 특별한 근거가 없다. 예를 들면, 인터넷 게임 중독

같은 경우 게임에 중독된다는 의미인데, 이는 기준이 불분명 하다. 게임은 긍정적 경험인 몰입을 일으키기에도 적당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장훈, 김우정, 이애리, 허태균, 2012). 일반적으로 게임이 몰입을 유도하는 구조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인터넷 기반 게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인터넷 게임이 긍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몰입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중독 중 무엇에 가까운 것인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어떤 기술, 어떤 대상이던 사람에 따라 강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차의 문제로 귀결된다.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과 가까워지는 인간관계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수단으로써 인터넷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인간의 동기,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고, 수단으로써 인터넷은 다른 것들과 비교해 편리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나 인간관계에 좋은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타인과의 연결은 기본적 욕구로 존재한다(Baumeister & Leary, 1995). 그런데 인터넷은 타인과의 연결을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빈번하게 가능하게 하고, 기존의 연결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편리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Pew Internet Research, 2000). 오프라인에서 가능했던 것이 온라인에서 더욱 쉽게 가능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 불가능했던 것조차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이 인간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터넷을 자신의 삶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에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효과를 창출한다고 주장된다(Fischer 1992; Hughes & Hans 2001).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은 온라인이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 관리하는데 주로 사용된다는 연구결과들에 의해 지지된다. Howard와 동료들(2001)은 대규모 무작위 표집법 조사결과에 “인터넷이 가족 친구와 연락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며, 많은 경우 사회적 관계망을 넓힌다. 많은 사람들이 친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가족, 친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증가를 의미한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온라인 도구가 사회적 접촉의 감소보다는 증가에 이바지 하였다” 라고 밝혔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Franzen(2000)이 15842명의 인터넷 사용 인구와 1196명의 비사용 인구의 비교 결과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사회적 관계망을 줄이거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도리어 이메일 사용은 사회적 관계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과 인간관계 확장을 살펴본 Wang과 Wellman(2010)의 연구에서도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인간관계가 더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ku, Naber, & Wellman, 2001). 또한 Robinson과 동료들(2002)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자가 비사용자에 비해 보다 많은 면대면 대화를 하며, 전화를 통한 사회적 관

계를 더 많이 한다는 결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터넷이 인간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체라기보다는 인간관계의 유지, 관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준다. 흥미로운 점은 Kraut와 동료들(2002)조차도 기존의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뒤집고, 성격특성에 따라 인터넷 사용이 많은 사람이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고, 친구와 가족과의 면대면 상호작용을 자주한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넷이 정보 공유를 통해 오프라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혹은 SNS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이 공유됨으로써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되었다. Katz와 Rice(2002)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이 종교, 여가, 지역 커뮤니티에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고, Gross와 동료들(2002)의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방과 후에 전통적인 방식의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를 촉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긍정적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비록 약한 관계(Weak tie)라 할지라도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확장은 개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Granovetter(1974)의 연구에 의하면 구직과정에서 84%는 약한 유대 관계를 통해 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형성된 약한 고리라 할지라도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확대는 사회적 자본의 증가로 이어지고 (Kavanaugh & Patterson, 2001), 필요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도움 받을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

기 때문에 개인의 삶에 이익이 될 수 있다 (Boase & Wellman, 2006). 게다가 인터넷을 통해 약한 유대관계 형성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유대관계 형성도 가능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자가 비사용자에 비해 더 많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nhart & Madden, 2007). 인터넷을 통한 만남이 면대면 만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일 때도 있다(Stevens & Morris, 2007). McKenna와 동료들(2002)의 연구에서도 현재 친한 사람들 중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다수 있었고, 50% 이상은 인터넷을 통한 만남이 면대면 만남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구의 2년 후의 추적조사에서는 그들이 여전히 인터넷을 통한 친밀한 만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한 친밀한 관계 형성은 아이러니 하게도 인터넷의 부정적 특징으로 이해되어 왔던 익명성으로 때문이라고 주장된다. 익명성은 진짜 자기(True self)를 상대적으로 쉽게 드러낼 수 있게 하고, 자기노출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또한 인터넷의 상대방과 약간의 친밀감이 형성 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상적 친구상을 투사하는 경향도 나타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로 발전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오프라인의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란 일부 우려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한 만남도 긍정적인 만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에서 다소 불가능했던 사회적 관계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이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이점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장점은 기존 오프라인에서 불가능 했거나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들을 싸고 쉽게 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장거리 인간관계는 인터넷을 통해 좋아진다고 주장된다. Wellman과 동료들(2001)에 의하면 인터넷 과다 사용자는 이메일을 장거리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장거리 사회적 관계의 경우에는 인터넷이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ohlfing 1995, Stafford & Reske, 1990). 인터넷이 보편화 되지 않았던 시절,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은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전화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꽤 비쌌기 때문에 자주 연락하고 지낼 수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원하면 언제든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터넷 혹은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은 지리적 제약뿐 아니라 심리,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도 장점을 가진다. 예를 들면, 인터넷은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사람이나 병, 스케줄상의 문제로 인한 고립을 해소해줌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Katz & Aspden, 1997; Rheingold, 1993). 또한 상대적인 익명성으로 인해 소수집단이 자신을 노출하지 않은 채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준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나 주변적인 정치적 신념, AIDS 감염자, 전립선암을 지닌 사람들은 인터넷 그룹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 받을 수도 있고, 서로를 격려 할 수 있다(Davison, Pennebaker, & Dickerson, 2000; McKenna & Bargh, 1998).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이 제공

한 새로운 공간이 소수자들의 삶과 인간관계를 보다 풍요롭게 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인터넷 사용의 긍정적 결과들은 인터넷이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부적응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현실적 제약을 제거해주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인터넷 사용은 인간의 삶과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함으로써 심리-사회적 안녕감을 높여준다.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사용 결과로 심리적 안녕감(Silverman, 1999), 자기 효능감, 소속 욕구, 집단적 자기 존중감(Gangadharbatla, 2008), 고독감과 우울감의 감소(Mckenna, Green, & Gleason, 2002)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과, 항상 우려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사회적 자기 존중감, 안녕감에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Valkenburg, Peter, & Schouten, 2006)은 인터넷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논증하는 연구 결과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연구를 제외하면 이론적 토대가 부실하고, 현상을 묘사하거나 통계적 수치만 제시하였기 때문에 인터넷이 갖는 독특한 긍정성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긍정적 효과에 관련된 연구에서도 인터넷의 주 효과로써 인터넷의 긍정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과 개인차

인터넷과 인간관계에 관련된 연구 경향의

한축은 인터넷 사용에 있어 개인차에 주목하는 연구이다. 인터넷 이용의 개인차를 강조하는 연구경향에서는 인터넷의 사용동기, 목적 등을 더욱 강조한다. 개인의 성격, 동기, 목적은 인터넷 사용유형을 만들어 내며, 인터넷 사용유형은 인터넷 사용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Bargh, 2002; Zhao, 2006).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 개인차에 주목하는 연구 경향은 인터넷 사용시간 보다는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종속변인이었던 외로움, 심리적 안녕감, 소외와 같은 개념들이 독립변인 혹은 조절, 매개 변수로써 작용한다. 다양한 개인특성에 따라 인터넷 사용을 통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물을 만들기도 하고, 특정한 개인특성은 인터넷 사용을 부정적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개인의 사용방식 혹은 인터넷과 개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연구경향이 되어가고 있다.

개인의 특성은 인터넷 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현실에서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온라인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Stevens & Morris, 2007). 불안 수준이 높은 경우 타인을 찾는 경향이 높아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음으로 해서 불안 수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Schachter, 1959). 그런데 사회적 불안이 높은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꺼린다. 인터넷은 상대적인 익명성으로 인해 타인과 보다 가볍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이던 오프라인이던 사회적 불안이 높은 사람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과 연결되길 원하게 되

는데,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은 타인과 연결 과정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보다 세분화해서 보면 개인의 성격, 자존감, 외로움 등이 인터넷 사용에 많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Kraut와 동료들(2002)은 기존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일부 수정하여 개인의 성격에 따라 더 많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Rich get richer”을 제안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인터넷 사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대 할 수 있고, 사회적 관계의 확대는 외로움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인터넷을 현실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사회적 관계 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방식의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자존감 수준도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자존감인 사람은 페이스북 사용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einfeld, Ellison, & Lampe, 2008). 그리고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종속변인으로 취급되었던 외로움은 인터넷 사용을 늘리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Amichai-Hamburger & Ben-Artzi, 2003). 청소년 대상 연구에 서도 실생활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인터넷을 통한 낯선 사람과의 인스턴트 메시지 교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Gross et al., 2002).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인터넷 공간을 수단 혹은 현실의 대안적 공간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 소외, 외로움, 낮은 자존감과 상태에 있게 되면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해 가능한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

게 나타나는데(DeWall, Maner, & Rouby, 2009; Gardner, Pickett, & Brewer, 2000; Leary, 1995), 인터넷은 이런 특성의 개인들에게 대안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인터넷은 개인의 사회성이 높을 때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반대로 사회적 소외, 사회적 불안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Turke, 1995 참조). 현실적으로 사회적 소외된 사람들은 인터넷을 위협이 작은 사회로 인식할 수 있고, 사회적 행위를 연습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Campbell, Cumming, & Hughes, 2006). 따라서 어떤 이들에게는 인터넷이 사회적 소외로 부터의 탈출을 시도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인터넷이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시스템이 사람들을 인터넷 공간으로 몰아넣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다.

현대사회, 소속의 욕구,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

개인차 혹은, 개인의 인터넷 이용 동기, 목적에 주목하는 연구결과들은 개인의 사회적 불안, 외로움 등이 개인을 인터넷으로 도피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안과 외로움이 인터넷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려 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준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포함되고 싶은 욕망이 인터넷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Putnam(1995)에 의하면 지난 35년간 사회적

연대, 사회적 참여, 신뢰가 줄어들었다. 투표율이 낮아졌고, 교회에 가는 것, 이웃사람과 정부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 자원봉사 시간, 저녁파티, 그리고 사회적 목적을 위한 모임이 줄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지난 35년간 소외와 외로움이 증가 했다는 의미다. 한국의 경우 거의 동일한 시기에 1인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0년 한국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1980년부터 1인가구가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다 2010년 현재 4인가구를 추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1인가구로 지낼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또한 LG 경제연구원의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조사에 의하면 1인가구가 현재의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7가지 라이프스타일 중 하나이기도 하다(박정현, 김나경, 2011). 이러한 통계치가 개인의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는 것은 가족과의 관계가 저절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족들과 같이 살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기본적인 심리적 관계의 안정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런 시점에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 하였다. 그런데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획기적으로 줄임과 동시에 다수 관계에 연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한다. 현대사회의 인간들이 예전에 비해 더욱 외롭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인터넷의 편리함은 관계망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공간의 제약의 극복을 통한 인터넷을 통한 타인과의 연결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

낌을 갖게 하고,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게 할 수도 있고,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을 수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SNS 사용도 한국 사회의 대표적 삶의 양식으로 자리잡은 것은 (박정현, 김나경, 2011) 외로움과 사회적 연결이라는 두 키워드가 현재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본적인 욕구의 결핍과 해결책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Csikszentmihalyi(2000)의 연구에 의하면 다른 사람과의 잡담이나 농담이 소외로부터 탈출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미디어는 다른 사람과 잡담, 농담을 하기에 최적화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소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 소셜 미디어 이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핍으로 인한 소속의 욕구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추론은 변하지 않는다. 소속의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이고, 외로움, 소외는 소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사람들의 행위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과 인간관계를 논의함에 있어 인터넷을 왜 사용하는가 하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심리학적 논의가 필수적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라고 주장되고 있다(Baumeister & Leary, 1995). Baumeister와 Leary(1995)는 지난 몇 십년간의 심리학 연구를 토대로 관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고통 받는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다. 사람들은 설혹 좋은 관계가 아닐지라도 최소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길 원한다(Gonsalkorale & Williams, 2007). 현실적으로

다양한 이유에 의해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단절 즉,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빈번하게 경험한다. 기본적인 소속의 욕구의 결핍, 즉 사회적 배제는 삶의 의미를 감소시키고(Sommer, Williams, Ciarocco, & Baumeister, 2001; Twenge, Catanese, & Baumeister, 2003; van Beest & Williams, 2006; Zadro, Williams, & Richardson, 2004), 사회적 자극과 관련 있는 것을 선택적으로 기억하게 하고(Gardner et al., 2000), 사회적 소속 자극을 추구하는 행동 패턴을 만들어 내고(Mead, Baumeister, Stillman, Rawn, & Vohs, 2011), 관계욕구를 증가 시키는 것(Lakin, Chartrand & Arkin, 2008)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로 적절한 대인 교류는 정신건강과 관련해 생활만족을 높이고, 기대수명도 높이고, 역경 대처를 잘하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Argyle & Henderson, 1985). 또한 적절한 사회적 관계망에 속하는 것은 사회적 지원(Wellman & Wortley, 1990), 직업기회(Granovetter, 1974), 커뮤니티 참여(Putnam, 1995)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배제는 개인에게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는지 항상 모니터링 한다(Leary, Tambor, Terdal, & Downs, 1995). 자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포함(Inclusion)상태가 되면,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 들어가기 위한 곳에 심리적 에너지를 더욱 많이 할당하게 된다(DeWall et al., 2009; Gardner et al., 2000).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배제된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타인에 의견에 더욱 동조하고(Williams, Cheung, & Choi, 2000), 타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며(Lakin et al., 2008), 궁극

적으로는 타인에게 수용되길 원한다.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심리적 번역시스템에 의해 발동된다고 주장된다(DeWall & Bushman, 2011). 그러나 항상 이러한 심리적 번역기제가 발동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역으로 사회적 배제는 심리적 번역체계를 파괴하고, 심리적 번역체계가 파괴는 향후 인간관계를 잘못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의 경우, 사회적 배제는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방식으로 행동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줄일 수 있다고 나타났다(Barkley, Salvy, & Roemmich, 2012 참조).

소속의 욕구와 소속 여부 확인과 관련된 논의들은 인간의 욕구와 인터넷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기존의 인터넷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이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기본적인 욕구인 소속의 욕구는 어디서든 충족이 되어야 하고,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 기반 미디어는 이러한 관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소속의 욕구가 SNS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중요한 영향이 있다고 나타난 것(Gangadharbatla, 2008; Ridings & Gefen, 2004)은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소속의 욕구의 충족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준다. 물론 면대면 대화가 욕구만족의 가장 좋은 방식(Elliot & Quattlebaum, 1979; Flasherty et al., 1998)이기는 하지만 개인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면대면 대화가 여의치 않다. 또한 개인화된 현대 사회는 개인이 더욱 외로워졌을 가능성도 있다. 소속의 욕구는 기본적 욕구이기 때문에 제거될 수가 없고, 충족되어야 한다. 소속의 욕구 결핍 상태는 사회적 관계 추구행위로 이어지게 되는

데,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은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 및 논의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인터넷과 인간관계, 혹은 인터넷의 삶에 대한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요약하면, 인터넷이 인간의 삶과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연구에서는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부정적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연구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인터넷 도입 초기에는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우세했던 반면, 인터넷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Kraut와 동료들(2002)도 인터넷의 부정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요약은 애매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가장 간명한 요약이다. 인터넷과 관련된 논의가 결론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연구자나 개인들은 각자 관심 혹은 자신이 본 것에 따라 인터넷 사용에 대한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결론을 도출해왔기 때문이다(Bargh, 2002; Bargh & McKenna, 2004). 연구자들은 자신의 이론적 지향에 따라 인터넷 사용시간, 외로움 등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두 변인은 이론적 지향에 따라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는 변인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관연구가 주였기 때문에 자

신의 취향에 따라 연구에서 나타는 결과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많다(Shklovski, Kraut, & Rainie, 2004).

현재까지 연구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근거하면, 대체가설에서 주장하는 인터넷의 주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McKenna & Bargh, 2000). 인터넷이 갖는 주 효과를 밝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만이 갖는 고유한 특징이 있어야 하고, 고유한 특징이 종속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 현재까지 연구된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들은 인터넷 사용시간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시간자원의 할당 문제는 인터넷의 독특함과만 관련된 변수는 아니다. 물론 인터넷의 거시적인 특징인 편리성, 유인성, 접근성 등으로 인해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에 시간자원을 많이 할당하게 되는 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인터넷은 오프라인 인맥을 관리, 유지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더 많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온라인 사용시간이 오프라인 시간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 인터넷이 면대면 대화를 대체하고, 궁극적으로 관계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되고 있지만, 연구들에 의하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면대면 대화 시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미디어, 예를 들면, TV, 전화기, 라디오 등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이런 우려가 기우일 수도 있다는 점을 나타내준다. 위와 같은 오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고유한 특징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인터넷만 갖는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 변화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인터넷과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미 현상을 묘사하는 연구들은 충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본질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인터넷의 상대적 익명성과 관련된 연구는 인터넷의 고유한 특징에 초점을 맞춘 연구 패러다임이다. 인터넷의 익명성은 인터넷이 등장했던 초창기부터 인터넷의 고유한 특징으로 여겨졌고, 인터넷의 부정성을 논의할 때 항상 등장했던 개념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상대적 익명성도 인터넷의 주 효과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등으로 인해 예전에 비해 익명성 자체도 잘 보장되지 않는다. 익명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인터넷이 현실의 규범을 정확히 따르고 있다는 주장들은 인터넷 익명성의 주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Spears와 동료들(2002)은 인터넷을 통한 집단 역학과 결과는 전통적으로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방식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제안했다. 인터넷의 익명성은 개인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익명성으로 인해 개인은 개인 정체성 부재를 뜻하는 비개인화상태에 이르고, 비개인화는 집단적 정체성을 보다 현저하게 지각하게 하고, 집단적 정체성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집단적 규범은 보다 강한 힘을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장훈, 김정운(2001)은 익명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성에대한 담론조차 현실 담론과 같은 방식,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은 개인의 오프라인이 투사된 공간이라고 이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개인의 목적, 동기, 신념 등이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통해 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Tyler, 2002). 따라서 최근의 연구들은 인터넷은 기존의 매체를 대신하는 새로운 방식일 뿐이지 그 자체로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가진다.

인터넷의 고유한 특징과 더불어 인터넷 관련 논의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인터넷의 일상화 정도이다. 인터넷은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고, 지금은 인터넷의 일상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인터넷이 삶의 중간에 끼어든 세대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던 세대는 인터넷 사용과 결과에 있어 다를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인터넷이 삶의 중간에 끼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사용의 처음과 나중에 같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프레임을 그대로 적용하는 연구들이나 예전의 시각으로 아이들의 인터넷 사용을 바라보는 것은 적절 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기술, 어떤 현상이든 도입 초기에는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된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예상되는 위험이 예상되는 이익보다 생존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은 삶의 적당한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된다. 물론 자리 잡은 위치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삶의 좋은 부분에만 자리 잡는 것은 아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 대상은 평균으로의 회귀와 비슷한 방식으로 삶 속에서 평형상태(Equilibrium)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도 좋게도 사용되고, 나쁘게도 사용될 수 있지만, 일종의 평형상태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라 그저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인터넷과 관

련된 연구들이 초기에 부정적인 쪽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다소 이동하는 경향, 긍정성이 강조된다고 해도 부정성이 실재한다는 연구들,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 동기에 맞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들은 인터넷이 삶에 자리 잡기 위해 요동치고 있는 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Tyler(2002)는 인터넷이 사회적 삶에 있어서 생각되는 것보다 아주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믿는 것보다 정책적으로 할 일이 많지 않다. 경제적, 교육적 의미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인 심리학적 의미에서는 인터넷이 생각보다 미약한 심리적 영향이 있다는 주장(Rierdan, 1999)이 가장 정확한 진단일 수 있다. Huang(2010) 인터넷 사용과 심리적 웰빙 지표들과의 관계에 관한 메타 분석 연구도 인터넷 사용이 심리적 웰빙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의 주 효과가 사실상 불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인터넷이 바꾸는 세상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기술이 없었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거나, 혹은 약하게 존재하는 개인의 목적, 동기들을 증폭시킬 수 있음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에 의한 증폭, 증강개념은 기존의 인터넷과 개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 될 수도 있지만 기존의 개인차 연구와는 다른 이론적 지향을 따른다. 기존의 개인차 연구는 변하지 않는 개인의 특성과 인터넷 사용과의 상호작용을 다룬 반면, 증강, 증폭의 개념은 개인의 특성의 강도가 인터넷에 의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현실에서는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증폭 과정을 통해 일상의 많은 부분과 면대면 관계를 침범 하는 경향도 목격된다(Flanagin, 2005).

스마트폰의 모빌리티는 이러한 현상을 도드라지게 만들고 있다. 요즘 한국에서 젊은 세대들에게서 인스턴트 메시지는 일상이 되어 버렸다. 잠들기 전까지 타인과 대화하고, 일어나자마자 SNS를 확인한다(Perlow, 2012). SNS를 통한 대화가 면대면 대화보다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40%에 육박하고 있다(박정현, 김나경, 2011). 또한 모빌리티가 가미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의 이용은 관계망 속에 자신이 지속적으로 속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증폭시킨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면대면 대화를 방해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약속을 하고 만난 두 사람은 상대에게는 관심이 없고, 인스턴트 메시지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흔히 목격된다. 이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서도 흔히 목격되는 광경이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 머무는 학생들이 심심치 않게 눈이 띈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방해를 차단하기 위해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곳도 생기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욕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자신의 인맥 속에서 자신이 배제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였다. 하지만 최근의 기기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기반 기술들은 자신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에 자신이 속해 있는지를 항상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있다는 의미다. 자신의 관계망 속에 있는 타인이 무엇을 하는지, 나와 관련된 것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견

딜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즉,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 기기들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소속여부, 관계연결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증폭시켰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편,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기반 미디어는 다양한 부정적 정서도 증폭 시킬 수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Gibbs와 동료들(2006)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한 자기노출 과정에서 다소 부풀려지거나 과장되어 선택된 정보들이 포스팅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된 사진들과 글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과도한 부러움, 질투,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우울한 정서를 증폭시킬 수 있다. 순간을 포착하는 사진은 특성상 과정은 없고 결과만 보여준다. 친구의 페이스북에 포스팅된 그럴듯한 사진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사진이 찍힌 긍정적 순간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사진 속 인물 혹은 사진을 찍은 사람에 대한 잘못된 정서예측을 하게 할 수 있다(Wilson, Wheatley, Meyers, Gilbert, & Axsom, 2000).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행일정 잡기, 예약, 교통체증, 여행지에서 과도한 요금 등 다양한 곤란을 겪기 일췌지만, 사진의 결과 혹은 한 줄로 요약된 결과에 초점을 맞춘 보는 이는 자신의 삶이 상대적으로 불행한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곤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매일 페이스북을 찾고,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가장 그럴듯한 순간을 페이스북에 올려놓는다. 경쟁적으로 부정적 정서의 과잉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이 정말 친밀한 사회적 관계망에 의 의해 전파 될 수 있지만(Fowler & Christakis, 2008), 그렇지 않은 경우는 행복을 전파시키는 대신 사회비교를 통해 질투, 과도한 부러움들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많다.

증폭효과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은 촉진

효과를 가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접근성, 유인성, 편리성은 다양한 대상에 대한 접근을 쉽게 만들었다. 이러한 가용성의 증가는 인터넷의 병리적인 이용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도박중독을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은 도박이 갖는 속성과 개인의 특성이지만,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의 좋은 접근성, 유인성 등과 같은 도박의 가용성이 도박중독을 촉진하는 방식(김교현, 2006)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은 인터넷 게임 중독, 인터넷 도박중독 등을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앞서 제시된 증폭된 소속 확인 욕구는 강박적으로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에 집착하게 하여, 인터넷에 의존하는 현상을 촉진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인터넷의 특징 중 인터넷의 빠른 피드백도 촉진효과를 유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빠른 피드백은 활동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sikszentmihalyi, 2000). 현실은 항상 지루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피드백은 자신의 평가와 타인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지루한 과정에 비해 평가는 한순간이다. 만약 실패라도 하게 되면, 또다시 지루한 현실의 과정을 겪어야한다. 그런데 인터넷의 피드백은 상당히 빠르다. 예를 들면,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경우, 자신이 한 행위의 결과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재시도가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빠른 피드백은 대상에 대한 통제력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한순간의 실패도 바로 만회할 수 있다. 커다란 손해 없이 시도할 수 있고, 좋은 결과도 얻게 되기 때문에 인터넷은 자신의 삶을 압축시키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일생을 통

해 시도와 결과를 10번 할 수 있다면 인터넷 공간에서는 1000번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빠른 피드백은 인터넷 게임과 같은 개인화된 인터넷 참여를 높이는 촉진제로 작용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중독이라고 이야기 할 수 도 있지만, 자기 복합성 이론에 비추어보면, 비극적인 현실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Linville, 1987).

인터넷이 작업환경을 바꾸고, 정부를 바꾸고, 사회적 관계를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개인과 사회의 근본적인 것을 바꾸는지와 관련된 질문이 더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연구자의 관심과 목적에만 초점을 맞춰 인터넷이 만드는 현실을 주장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사람들은 TV, 핸드폰, 비파 등을 자신들의 자연스럽게 흡수한 것처럼 인터넷관련 기술을 흡수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인터넷, SNS에 대한 극단적인 주장들은 경계해야한다.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인터넷과 관련된 논의들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과관계 설정의 애매함, 인터넷 일상화를 고려하지 않은 점, 인터넷이 만드는 고유한 심리적 메커니즘에서 측면에서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인터넷 일상의 현상 토대로 보다 본질에 다가선 접근이 필요하고, 기존의 관점을 수정하는 작업들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2011, 8, 24). 미국 대학생들 “SNS는 가짜친구”. http://news.khan.co.kr/kh_news/

- khan_art_view.html?artid=201108242132015&code=940100
- 김교현 (2006). 도박행동의 자기조절모형: 상식 모형의 확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243-274.
- 동아일보 (2012, 12, 23). “카톡 없인 못살아”, 하루 평균, 43분 사용. <http://news.donga.com/Economy/mobile/3/0122/20121223/51785664/1>
- 박정현, 김나경 (2011). 2011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LG경제연구원.
- 이동훈, 이민석, 박성민, 이준환 (2010). 확산되는 소셜 미디어와 기업의 신소통 전략. *삼정경제연구소*.
- 장 훈, 김우정, 이애리, 허태균 (2012). 관찰을 통한 몰입이 가능한가?: TV 스포츠 경기 시청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31-49.
- 장 훈, 김정운 (2000). 성담론의 유형과 지배담론의 구조: 문화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2), 151-172.
- 한국통계청 (2011). 인구가구구조와 주거특성 변화.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인터넷 이용자의 SNS이용실태조사.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2012년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 함유근, 박성민 (2011). SNS에 대한 4가지 오해. *삼성경제연구소*.
- Amichai-Hamburger, Y., & Ben-Artzi, E. (2003). Loneliness and internet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9, 71-80.
- Argyle M, Henderson M. (1985). *The Anatomy of Relationships and the Rules and Skills Needed to Manage them Successfully*. William Heinemann: London.
- Aula, P. (2010). Social media, reputation risk and ambient publicity management. *Strategy & Leadership*, 38(6), 43-49.
- Bargh, J. A. (2002). Beyond simple truths: The Human-internet interac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8(1), 1-8.
- Bargh, J. A., & McKenna, K. Y. A. (2004). The Internet and social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573-590.
- Barkley, J. E., Salvy, S. J., & Roemmich, J. N. (2012). The effect of simulated ostracism on physical activity behavior in children. *Pediatrics*, 129, 659-666.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oase, J., & Wellman, B. (2006). Personal relationships: On and off the Internet. In A. Vangelisti & D. Perlman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pp.709-72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mpbell, A. J., Cumming, S. R., & Hughes, I. (2006). Internet use by the socially fearful: Addiction or therapy?, *CyberPsychology & Behaviors*, 9(1), 69-81.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40-357.
- Csikszentmihalyi, M. (2000).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Jossey-Bass.
- Cummings, J. B., & Kraut, R. (2002). The quality of online social relationship. *Communications of the ACM*, 45, 103-108.
- Davis, R. A. (2001). A cognitive-behavioral model

-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Computer in Human Behavior*, 17, 187-195.
- Davison, K. P., Pennebaker, J. W., & Dickerson, S. S. (2000). Who talks? The social psychology of illness support groups. *American Psychologist*, 55, 205-217.
- DeWall, C. N., & Bushman, B. J. (2011). Social acceptance and rejection: The sweet and the bitter.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 256-260.
- DeWall, C. N., Maner, J. K., & Rouby, D. A. (2009). Social exclusion and early-stage interpersonal perception: Selective attention to signs of accep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 729-741.
- Elliot, W., & Quattlebaum, C. (1979). Similarities in patterns of media use: A cluster analysis of media gratifications. *Western Journal of Speech Communication*, 43, 61-72.
- Fischer C. (1992). *America Calling: A Social History of the Telephone to 194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lanagin, A. J. (2005). IM online: instant messaging use among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22(3), 175-187.
- Flaherty, L. M., Pearce, K. J., & Rubin, R. B. (1998). Internet and face-to face communication: Not functional alternatives. *Communication Quarterly*, 46, 250-268.
- Fowler, J. H. & Christakis, N. A. (2008). Dynamic spread of happiness in a large social network: longitudinal analysis over 20 years in the Framingham Heart Study. *British Medical Journal*, 337. Article #2338.
- Franzen, A. (2000). Does the internet make us lonel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6(4), 427-438.
- Gangadharbatla, H. (2008). Facebook me: collective self-esteem, need to belong, and internet self-efficacy as predictors of the I-generations attitudes toward social networking sites. *Journal of Interactive Advertising*, 8(2), 5-15.
- Gardner, W., Pickett, C. L., & Brewer, M. B. (2000). Social exclusion and selective memory: How the need to belong influences memory for social ev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486-496.
- Gibbs, J. L., Ellison, N. B., & Heino, R. D. (2006). Self-presentation in online personals. *Communication Research*, 33(2), 152-177.
- Gonsalkorale, K., & Williams, K. D. (2007). The KKK won't let me play: Ostracism even by a despised outgroup hur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 1176-1186.
- Granovetter, M. (1974).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Grohol, J. (1999). *Internet addiction guide*. available at: <http://psychcentral.com/netaddiction/>
- Gross, E. F., Juvonen, J., & Gable, S. E. (2002). Online communication and well-being in early adolescence: The social function of instant messages. *Journal of Social Issues*, 58, 75-90.
- Heitner, E. L.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use of the Internet and soci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3 4371.
- Howard, P. E. N., Rainie L., & Jones S. (2001). Days and nights on the Interne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 383-404.
- Huang, C. (2010). Internet use and psychological

- well-being: A meta analysi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3(3), 241-249.
- Hughes, R. J., & Hans, J. D. (2001). Computers, the internet, and families: A review of the role new technology plays in family life. *Journal of Family Issues*, 22, 778-92
- Ishii, K. (2006). Implication of mobility: The uses of personal communication media in everyday life. *Journal of Communication*, 56, 346-365.
- Katz, J. E., & Aspden, P. (1997). "Motivations for and Barriers to Internet Usage: Results of a National Public Opinion Survey," Paper presented at the 24th Annu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search Conference, Solomons, Maryland, October 6, 1996.
- Katz, J. E., & Rice, R. E. (2002). Social consequences of Internet use: Access, involvement, and interaction. Cambridge, MA: The MIT Press.
- Kavanaugh, A. L., & Patterson, C. J. (2001). The impact of community computer networks on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involve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 496-509.
- Kim, J. H., LaRose, R., & Peng, W. (2009). Loneliness as the cause and the effect of problematic internet us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CyberPsychology & Behavior*, 12, 451-455.
- Koku, E., Nazer, N., & Wellman, B. (2001). Netting scholars: Online and offlin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4(10), 1752-1774.
- Kraut, R., Kiesler, S., Boneva, B., Cummings, J., Helgeson, V., & Crawford, A. (2002). Internet paradox revisited. *Journal of Social Issues*, 58, 49-74.
- Kraut, R., Patterson, M., Lundmark, V., Kiesler, S., Mukopadhyay, T., & S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 1017-1031.
- Lakin, J., Chartrand, T. L. & Arkin, R. (2008) I am too just like you: Nonconscious mimicry as an automatic behavioral response to social exclusion. *Psychological Science*, 19, 816-22.
- Leary, M. R., Tambor, E. S., Terdal, S. K., & Downs, D. L. (1995).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18-530.
- Lenhart, A., & Madden, M. (2007). Social Networking Websites and Teens: An Overview.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at http://www.pewinternet.org/PPF/r/198/report_display.asp
- Linville, P. W. (1987). Cognitive buffer against stress-related i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4), 663-676.
- McKenna, K. Y. A., & Bargh, J. A. (1998). Coming out in the age of the Internet: identity 'demarginalization' through virtual group particip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681-94.
- McKenna, K. Y. A., & Bargh, J. A. (2000). Plan 9 From Cyberspace: The Implications of the Internet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1),

- 57-75.
- McKenna, K. Y. A., Green, A. S., & Gleason, M. E. J. (2002). Relationship formation on the Internet: What's the big attrac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9, 31-38.
- Mead, N. L., Baumeister, R. F., Stillman, T. F., Rawn, C. D., & Vohs, K. D. (2011). Social Exclusion Causes People to Spend and Consume Strategically in the Service of Affili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 902-19.
- Mesch, G. S. (2003). The family and the Internet: The Israeli case. *Social Science Quarterly*, 84, 1039-1050.
- Mazalin, D., & Moore, S. (2004). Internet use, identity development and social anxiety among young adults. *Behavior Change*, 21, 90-102.
- Nie, N. H. (2001). Soci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 and the Internet: reconciling conflicting finding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 420-35.
- Nie, N. H., & Erbring, L. (2000). *Internet and society: a preliminary report*. Available at [www.stanford.edu/group/siqqs/Press Release/Preliminary Report.pdf](http://www.stanford.edu/group/siqqs/Press%20Release/Preliminary%20Report.pdf).
- Nie, N. H., & Hillygus, D. S. (2002). Where does Internet time come from? A reconnaissance. *IT & Society*, 1, 1-20.
-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2000). *Tracking online life: How women use the Internet to cultivate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friends*. available at <http://www.pewinternet.org/reports/>
- Perlow, L. (2012). *Sleeping with your Smartphone: How to Break the 24/7Habit and Change the way you work*. Boston, MA: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65-78.
- Rheingold, H. (1993).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Reading, MA: Addison-Wesley.
- Rierdan, J. (1999). Internet-depression link? *American Psychologist*, 54(9), 781-782.
- Ridings, C. M., Gefen, D. G. (2004). Virtual community attraction: Why people hang out online.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10. available at http://jcmc.indiana.edu/vol10/issue1/ridings_gefen.html
- Robinson, J. P., Kestnbaum, M., Neustadl, A., & Alvarez, A. (2002). The Internet and other uses of time', in Barry Wellman & Caroline Haythornthwaite (eds), *The Internet in Everyday Life*. Oxford: Blackwell. pp.244-262.
- Rohlfing, M. E. (1995). Doesn't anybody stay in one place anymore? An exploration of the understudied phenomenon of long-distance relationships. In *Understudied Relationships: Off the Beaten Track*, ed. JT Wood, S Duck, pp.173-96. Thousand Oaks, CA: Sage
- Schachter, S. (1959). *The psychology of affili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eepersad, S. (2004). Coping with loneliness: Adolescent online and offline behavior. *CyberPsychology & Behavior*, 7(1), 35-39.
- Shapiro, J. S. (1999). Loneliness: Paradox or artifact? *American Psychologist*, 54, 782-783.
- Shklovski, I., Kraut, R., & Rainie, L. (2004). The Internet and social participation: Contrasting

-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0(1). at http://jcmc.indiana.edu/vol10/issue1/shklovski_kraut.html
- Silverman, T. (1999). The Internet and relational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54, 780-781.s
- Sommer, K. L., Williams, K. D., Ciarocco, N. J., & Baumeister, R. F. (2001). When silence speaks louder than words: explorations into the intrapsychic and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social ostracism. *Basic &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225-243.
- Spears, R., Postmes, T., Lea, M., & Wolbert, A. (2002). When are net effects gross products? The power of influence and the influence of power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8(1), 91-107.
- Sproull, L., Faraj, S. (1995). Atheism, sex and databases: the net as a social technology. In: Keller, B. K. J. (Ed.), *Public Access to the Internet*. MIT Press, Cambridge, MA, 62-81.
- Stevens, S. B., & Morris, T. L. (2007). College dating and social anxiety: Using the Internet as a means of connecting to others. *CyberPsychology & Behavior*, 10, 680-688.
- Stafford, L., & Reske, J. R. (1990). Idealization and communication in long-distance premarital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hips*, 39, 274-79.
- Steinfeld, C., Ellison, N. B., & Lampe, C. (2008). Social Capital, self esteem, and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 434-445.
- Turkle, S. (1996). Virtuality and its discontents: Searching for community in cyberspace. *The American Prospect*, 24, 50-57.
- Turow, J. (1999, May 4). *The Internet and the family: The view from the parents, the view from the press* (Report No. 27). Philadelphia, PA: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Available at: <http://www.appcpenn.org/internet/>
- Twenge, J. M., Catanese, K. R., & Baumeister, R. F. (2003). Social exclusion and the deconstructed state: time perception, meaninglessness, lethargy, lack of emotion, and self-awar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409-423.
- Tyler, T. R. (2002). Is the Internet changing social life? It seems the more things change, the more they stay the same. *Journal of Social Issues*, 58, 195-205.
- Valkenburg, P. M., Peter, J., & Schouten, A. P. (2006). Friend networking sites and their relationship to adolescents' well being and social self-esteem.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9, 584-590.
- Valkenburg, P. M., & Peter, J. (2007). Internet communication and relation to well-being: Identifying some underlying mechanisms. *Media Psychology*, 9, 43-58.
- van Beest, I., & Williams, K. D. (2006). When inclusion costs and ostracism pays, ostracism still hur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918-928.
- Wang, W., & Wellman, B. (2010). Social connectivity in America: Changes in adult friendship network size from 2002 to 2007.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3(8), 1148-1169.
- Wellman, B., Haase, A. Q., Witte, J., &

- Hampton, K. (2001). Does the Internet increase, decrease, or supplement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ommit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3), 436-55.
- Wellman, B., & Wortley, S. (1990). Different strokes for different folks: Community ties and social suppor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 558-588.
- Williams, K. D., Cheung, C. K. T., & Choi, W. (2000). Cyberostracism: effects of being ignored over the Intern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748-762.
- Wilson, T. D., Wheatley, T. P., Meyers, J. M., Gilbert, D. T., & Axsom, D. (2000). Focalism: A Source of durability bias in affective forecas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821-836.
- Young, K. (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Wiley.
- Zadro, L., Williams, K. D., & Richardson, R. (2004). How low can you go? Ostracism by a computer is sufficient to lower self-reported levels of belonging, control, self-esteem, and meaningful existe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 560-567.
- Zhao, S. (2006). Do internet users have more social ties? a call for differentiated analyses of internet us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1, 844-863.

논문 투고일 : 2013. 04. 10

1차 심사일 : 2013. 05. 08

게재 확정일 : 2013. 05. 24

Internet based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Hoon Jang

Colorado State University

It seems that Internet based communication has been settled down in everyday life. Internet based communication studies also have been done and they proposed that internet based communication modal differs from other communications modal. One of the major themes about internet based communication was the effect of internet based communication on relationships. Early studies suggested that internet has negative effect on life and relationships, although it has positive effect on economics and information distribution. Because there is relative anonymity, People and Researchers thought that people easily could be exposed to negative situations like pornography, instant relationship, negative reply and so on. However, Recently there have been on going un-solving arguments about effect of internet based communication. From the negative perspective, Internet based communication is negative to relationship, because internet based communication could displace face to fact communication and old off-line relationships. However, from the positive perspective, researchers focused on the motivation and purpose of internet users. In this paradigm, people could expand their life and relationships using internet because internet could remove the various restrictions for relationship. Moreover they also suggested that people could enlarge their relationships because they could easily disclose themselves in anonymity. However, No conclusion has been drawn yet and there needs some organization of two standpoints. Accordingly, This study is integrating the two perspectives and proposing future direction of internet based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Key words : Internet, Internet based communication, SNS, Relationship, Effect of Internet